

양양소식



2022. 8

Vol. 327

CONTENTS

04 기획특집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신축 이전

08 마을가는 길

손양면 송전리





달이 자꾸 따라와요

이상국

어린 자식 앞세우고
아버지 제사 보러 가는 길

- 아버지 달이 자꾸 따라와요
- 내버려둬라
- 달이 심심한 모양이다

우리 부자가 천방뚝 은사시나무 이파리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쏘르르쏘르르 몸 씻어
내는 소리 밟으며 쇠똥냄새 구수한 판길이 아저씨네 마당을 지나 옛 이발소집 담을
돌아가는데

아버짓적 그 달이 아직 따라오고 있었다

이상국(李相國)



1946년 강원도 양양에서 출생하였으며 1976년 〈심상〉에 '겨울 추상화'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방송통신대 국문학과, 강원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만해미을 운영 위원장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시집 〈집은 아직 따뜻하다〉, 〈어느 농사꾼의 별에서〉, 〈뿔을 적시며〉, 〈달은 아직 그 달이다〉, 〈저를
어도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 등과 시선집 〈국수가 먹고 싶다〉, 현정문집 〈뒤란의 노래〉, 문학자전
〈국수〉 등이 있다. 백석문학상, 민족예술상, 정지용문학상, 박재삼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설
악문화예술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양양소식

Vol. 327

CONTENTS

COVER STORY



양양 해안도로 드라이브

희망양양

- 4 기획특집_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신축 이전
- 8 마을가는 길_ 손양면 송전리
- 12 양양군청 IN & 人_ 문화체육과
- 15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양양 남대천

의기양양

- 16 의정소식_ 제9대 양양군의회 개원
- 18 향토사 이야기_ 양양 진전사에서 시작된 한국의 조계종
- 20 YANGYANG NEWS

열린양양

- 22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4 건강 알리미_ 장마·태풍과 함께 찾아오는 풍수해 감염병
-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 28 공익광고_ 양양군 농어촌버스(마을버스) 운행시간표 및
버스노선도

양양군 SNS 주소

-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ikeyyangyang>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likeyyangyang_official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양양소식 · 327호

-
- | 발행일 2022년 8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양양의 첫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신축 이전



양양이 서핑의 메카로 확 뜨면서 양양을 찾는 관광객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핑 성지 양양」에 대한 기대를 안고 찾은 관광객들이 도착해 처음 만나는 곳이 바로 양양 종합여객터미널이다.

지난 7월 1일, 송암리에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이 신축 이전하면서 양양의 첫 이미지가 바뀌었다. 이제는 관광도시 양양에 걸맞은 시설로 갖춰진 것이 반갑다.



도시의 첫 이미지를 개선하다

일 때문에, 관광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도시를 방문할 때면 버스터미널의 첫인상은 두 가지이다.

새로 이전해 깨끗하지만 시내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이동이 불편하거나, 낡고 오래돼 편의시설이 엉망이어서 불편한 경우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신축 전 양양의 버스터미널은 후자에 속했다. 지은 지 40년이 돼 낡고 노후한 데다 좁고 편의시설이 좋지 않았다.

1978년부터 운영해 온 양양시외버스터미널은 40여 년이 지나면서 건물 내 외벽이 퇴색되고 곳곳이 노후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터미널 내 매표소와 대합실 등이 상당히 비좁고, 화장실 등 부대시설도 깔끔하지 않아 개선 요구가 계속 돼 왔다.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바라던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이 준공돼 7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도심에서 멀지 않으니 이동이 편리하고 편의시설이 갖춰져 이용하기 좋아졌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은 송암리 29-8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약 1,800㎡ 규모로 조성됐는데, 1층에는 대합실과 매표소, 무인발권기, 수하물 보관소 등 터미널 기본 시설을 비롯해 관광안내소, 음식점이 자리하고 있다. 2층에는 사무실과 카페 등 휴게 편의 서비스 시설이 있다. 터미널은 고속·시외·시내버스와 택시, 일반 차량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해 시설이 갖춰져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대면 티켓팅과 함께 비대면으로 표를 끊을 수 있는 무인 발권기 3대가 설치돼 이용객들의 호응도가 높다.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물품 보관함과 휴대폰 충전기 등이 갖춰져 있고 곳곳에 쉴 수 있는 의자가 있어서 좋다는 이용객들의 후기도 많다.

특히 양양은 경유지로 대부분 버스의 배차 간격이 길고 대기 시간이 있다 보니 대기하는 공간이 더욱 필요한데, 대기공간과 이용시설이 깔끔해서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어서 좋고, 터미널 2층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데 이곳에서 노트북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어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전국으로 뻗어갈 노선 확보도 계획 중

양양에서 인근의 강릉이나 속초 가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양양에서 동서울터미널까지 2시간 정도 소요돼 서울 경기로 이동하는 이용객들은 아주 편리하다.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 후 이용이 수월해진 것과 2시간 내에 서울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보니 서울 경기권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이용도 활발하다.

새로 이전한 양양종합여객터미널에서는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직결돼 서울 강남 터미널 노선이 심야 프리미엄까지 포함

해 하루 20회 운행하고, 동서울 9회, 인천 8회, 춘천 5회를 오가는 노선 등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하루 최대 70여 차례 12개 노선을 운행한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오가는 노선과 속초 강릉을 오가는 노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새로운 관광객 확보와 편의를 위해 신규 고속·시외버스 노선 발굴도 추진될 계획이다. 아직은 운행 노선이 없는 경기권과 충청권이 우선 고려 대상이며 노선 수요 조사를 통해 다양한 시외 노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편리한 점은 주차장이다. 새로 이전한 터미널에는 최대 100여 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연계 교통망의 이용 편의를 위해 택시 승강장과 함께 시내버스 회차 구역도 만들어 지역 내 관광명소를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잘 연계돼 있다. 관광안내소도 있으니 여행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농촌 투어를 오는 손님들을 태우기 위한 마

을버스도 이곳에서 회차하고, 양양국제공항까지 플라이강원 셔틀버스가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무료로 운행하고 있어, 양양 여행 출발지로서 종합여객터미널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앞으로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렌터카업체도 입주할 예정이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직 인근에 음식점 등 상가가 형성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하지만 이 또한 차츰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도시 확장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

양양군은 터미널 인근 개발이 이어지면서, 양양읍 도심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터미널 주변에는 동해북부선 양양역, 양양경찰서, 중대형마트 등이 2027년까지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어서 양양 시가지의 도심 확대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선 6기부터 이 사업을 중장기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양양군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발맞춰 종합여객터미널 이전 부지를 송암리로 확정하고, 양양국제공항과 동해북부선 철도 등 주요 교통 인프라의 연계성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종합여객터미널이 산악과 해안의 교차 관광 거점에 위

치함에 따라 국도 46호선 오색령과 이어지는 간선 도로망 확충에 속도를 내는 등 입체적인 교통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동해북부선의 양양역이 바로 지철에 자리해 철도와 함께 대형 역세권이 형성되고 양양농협 하나로 마트까지 완공되면 인근 낙산 신도시의 배후지구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그동안 추진해온 양양군의 교통인프라 확충과 주변 개발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 운영에 따라 서핑 산업화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등 핵심 사업을 연계해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은 물론 상권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글·사진 : 편집부〉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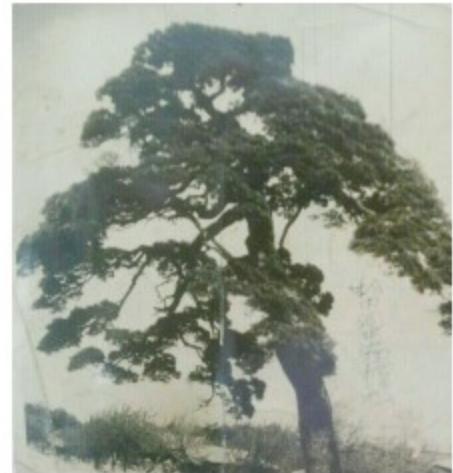


손양면 송전리

푸른 솔밭과 청정 해변을 끼고 있는 마을
제주 고씨의 뿌리를 가진 집성촌
농사도 1등, 교육도 1등, 주민 화합도 1등

살기 좋은 마을의 조건은 무엇일까? 350년 전 송전리에 처음 터를 잡은 제주 고씨의 선조에게는 좋은 환경을 알아보는 선견지명이 있었나 보다.

토질이 좋아 농작물이 잘 자라는 대지, 무슨 일이든 열정을 갖고 뜨뜻뭉치는 주민들, 마을을 아늑하게 감싸주는 울창한 솔밭 등을 갖춘 마을을 보고 있으면 그 모든 게 옛 선조의 안목 덕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좋은 터를 물려받은 후손들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마을의 역사, 문화, 자연을 아끼고 지키는 데 힘쓰고 있다.



관모송(冠帽松)

제주 고씨 집성촌 350년의 역사



송전리는 200년 전에는 금강리와 한 동네를 이루었지만,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의 마을로 분리되었다. 바로 이웃 동네인 오산리처럼 송전리도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 속하는데, 1978년 오산리(鰲山里) 유적 조사 중에 선사시대 유물이 다양 발견되었다고 한다.

「동쪽은 대해(大海)에 연접하고 동서북에는 송수무성(松樹茂盛)하여 사시장청(四時長青) 수려한 풍광으로 둘러있는 한 가운데 자리한 집단마을로 주위에는 크고 작은 개(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와 웅덩이가 많아 구명(舊名)은 송호리[松湖里 : 350여 년 전]로 칭하다가 그 후[연대미상] 송전리로 개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속칭 '솔밭'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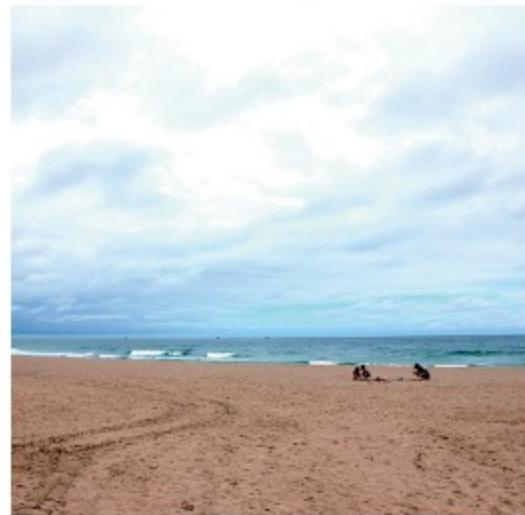
– 출처 : 양양문화원 홈페이지 <지명유래>

마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송전리는 소나무와 인연이 깊다. 350년 전 강릉에 살던 제주 고씨 11대조가 외가인 이곳

에 처음 터를 잡을 때, 관모송(冠帽松)이라 불리는 소나무 다섯 그루를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풍채가 좋아 마을의 자랑이었던 관모송은 안타깝게도 1980년대에 태풍으로 쓰러지고 없어져 사진으로만 남아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마을의 근간을 상징하는 나무로 기억된다.

송전리는 제주 고씨 집성촌으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제주 고씨'의 후손들이다. 한 마을에 하나의 성씨가 오랫동안 뿌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건 꽤 이례적인 사례라고 한다. 그만큼 주민 간의 유대감이 강하고, 이는 마을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선조를 모시는 시제(時祭)를 비롯한 전통 제례와 세시풍속 등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송전리는 농경사회의 집성촌 형태가 잘 유지된 마을 중 하나이다.



열정 넘치는 송전리 사람들

송전리에는 52가구 107명의 주민이 거주 중이다. 절반 이상이 고령층이지만, 여전히 농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70년 동안 농사 외길을 걸어온 고석봉前노인회장은 고령에도 여전히 현역 농부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롯이 자신의 의지로 일하고 그만큼 결과물을 거두는 농사의 정직함을 몸소 체감하며 살아왔다. 송전리 주민들의 농사에 대한 자부심은 그만큼 대단하다.

『여기 있는 분들은 농사에 있어서는 다 박사예요. 송전리 땅이 좋은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농사의 달인이라 어떤 작물이든지 알이 굵어요. 벼농사와 밭농사를 주로 하는데, 열무·시금치·감자·옥수수 등 채소 출하량이 많은 편입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모종 집산지였어요. 양양군에서 비닐하우스를 가장 먼저 도입한 마을이죠. 워낙 일이 많아서 마을 분들 중에서 몸이 성한 분이 없어요. 허리도 굽으시고 손도 거칠 어지셨지만, 황금 손을 가지셔서 농사를 참 잘 지으세요.』

– 고교연 前 양양군 기획감사실장

열정적인 기질을 타고난 송전리 사람들에게는 '대충', '설령 설령'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 한다는 뜻이다. 손양면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마을로 소문이 난 송전리 주민들은 면민체육대회에서 우승을 놓치는 일



이 거의 없었다. 승부욕만큼 교육열도 높아서 마을 내 자리 한 송포초등학교를 통해 배출된 걸출한 인재들도 많다고 한다. 이게 다 '우리 마을을 최고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 그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주민들의 단결력은 어느 마을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

송전리에는 마을 사람들만 아는 노래가 있다. 바로 1950년대에 만들어진 '송전리 민가'로, 주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애향심을 기르고, 화합을 꾀하곤 했다. 마을회관에 모인 몇몇 어르신들에게 한 소절 부탁드리니,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1절부터 3절까지 완창 하신다. 그 모습에서 마을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한껏 느껴졌다. 주민들의 열정이 송전리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았다.



송전리에서 숨은 보물찾기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시골 마을처럼 보이는 송전리에는 눈과 귀를 번쩍 뜨이게 할 만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 제주 고씨의 문중산인 '쿵쿵산'은 발을 구르면 밑에서 '쿵쿵' 울리는 소리가 나는 신기한 산이다. '하늘에 있던 북이 떨어져 산 밑에 묻혔고, 북 방망이는 오산봉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북'이라는 뜻의 '천고낙지(天鼓落地)'라고도 불린다. 산에서 북소리가 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어 많은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울창한 솔숲과 어우러진 송전해변 역시 송전리가 아끼는 보물이다. 지난해 정식 해수욕장으로 인가받아 코로나19 걱정 없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서서히 이름을 알리고 있다.

고석엽 이장은 '송전해변은 물도 깨끗하지만, 전망이 좋아서 속초 대포항까지 보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해수욕장 운영이 쉽지 않았지만, 올해는 많은 피서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최근 2022년 마을단위축제 지원 대상 마을로 선정된 송전리는 '조개잡이 축제'

로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민들 역시 마을의 해수욕장 관리에 힘을 보태며 명품 해변으로 거듭날 미래를 함께 견인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과 열의 넘치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온 이 마을도 고령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고석엽 이장은 최근에 6~7가구가 이주해 와서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귀농·귀촌인이 유입되길 바라고 있다. 평생 송전리에서 살아온 고석우 어르신은 마을에 뿌리를 둔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 이곳을 지켜주길 희망한다.

세월의 힘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세월과 함께 무르익으며 더욱 빛을 발하는 존재들도 있다. 송전리에는 수령이 150년이나 되는 배롱나무가 있는데, 여전히 붉디붉은 꽃을 피워낸다. 오래되었다고 다 사라지는 건 아니다.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는 이들이 있기에 배롱나무는 매년 꽃을 피울 것이다. 송전리도 그렇게 '살기 좋은 마을', '살고 싶은 마을'로 오래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 주면 좋겠다.

〈글·사진 : 편집부〉

문화체육과

군민의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부서 : 문화체육과

규모 : 4팀 36명

업무팀 : 문화예술, 문화재,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

유서 깊은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양양은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 예총과 문화재단이 운영되는 흔치 않은 지역이다. 그만큼 주민의 문화예술 욕구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주민 눈높이에 맞춰 문화체육과의 업무와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역사와 문화예술, 스포츠까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체육과의 활약상을 들여다본다.





양양국민체육센터

여가생활을 책임지는 문화체육

문화체육과는 군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함께 삶의 질 향상, 전반적인 생활체육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앞장서는 부서다. 지난 2020년 군의 조직개편으로 전신인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광과가 별도 조직으로 구성되고, 문화체육과도 새로 구성됐다. 이로써 기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던 문화·체육시설의 전담·관리업무도 맡고 있다.

주민의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팀별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먼저 문화예술팀은 문화예술·공연 사업과 단체 지원업무를 비롯해 문화복지회관, 웰컴센터, 일출웨딩홀 등 관련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지역의 높은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 중이다.

문화재팀은 국가지정, 도지정문화재 환경영비와 유지보수, 그리고 박물관 운영 등 크게 두 가지 업무를 맡고 있다.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된 문화재다 보니 주로 보수업무가 많다.

문화재로 지정되기에는 가치가 조금 떨어지지만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지정되게끔 기초작업을 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문화체육과는 양양군 최초의 학예연구관인 전유길 과장을 비롯해 총 36명의 직원이 문화예술, 문화재,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 팀으로 나뉘어 분야별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민의 여가 생활과 관련된 문화예술부터 체육시설 관리까지 주민과 밀접한 부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 체육 활동도 차츰 정상화되면서 업무도 활기를 찾고 있다.

스포츠마케팅팀은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유치, 관내 체육대회 운영지원, 스포츠 바우처 운영이 주요 업무다. 사이클 전용 경기장을 갖추고 있는 양양은 명실상부 사이클의 고장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전국 사이클팀들의 전지훈련과 전국규모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체육시설팀은 대규모 공공 체육시설을 신규 확충하거나, 기존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국민체육센터, 벨로드롬(사이클 전용 경기장), 축구장, 실내 게이트볼장, 재작년에 신축한 탁구장까지 관내 공공 체육시설 24개를 관리한다. 휴일을 포함해 체육시설 이용이 많다 보니 3교대 근무로 돌아간다.

역사 문화와 힐링의 고장에서 일한다는 자부심

지난달 2022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도로경기에서 지역 사회단체와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총출동해서 교통통제 등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오는 10월 전국체전이 울산에서 개최되지만, 사이클 종목만큼은 양양에서 개최한다. 명실상부 사이클의 고장으로서, 또한 유서 깊은 역사 문화 도시로서 문화체육과의 자부심이 크다.

올해 문화체육과는 크고 작은 결실을 거뒀다. 지난 2월 문화

체육관광부가 진행한 공모사업에서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의 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 선정돼 박물관의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또 양양군청 사이클팀이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팀의 차별화된 운영계획, 농촌 인력 지원, 각종 자전거 행사 지원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탄탄한 운영 능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양양군 사이클 선수단(양양군청, 양양고, 양양중)은 올해 전국대회에서 연속 두 차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① 2022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

② 제24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 종합우승
(좌측부터 홍승표 前부군수, 이호식 사이클팀 감독, 전유길 문화체육과장)

양양의 여가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과는 계속해서 주민들의 문화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발 먼저 나아가고자 한다.

현재 노후 된 실내사격장에 대한 신규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와 생활체육센터 볼링장 증축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완공된다.

또 오는 2025년 건립을 목표로 군립 도서관이 추진 중이며 향후 전문 공연장과 전시장 기능을 갖춘 아트센터 건립도 논의 중이다. 문화체육과의 활약은 지역주민의 여가문화 수준을 높이고, 이는 다시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문화체육과의 활발한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글·사진 : 편집부〉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양양 남대천



2018년



2022년

남대천 인피니티 물놀이장, 7월 1일 개장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양 남대천 인피니티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남대천 인피니티 물놀이장(운영시간 10시~21시)은 어린이 물놀이장, 유아 물놀이장과 분수대, 샤워장,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최대 수심을 30cm 안팎으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은 구명장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양양 남대천을 찾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이용료, 샤워장, 탈의실 등 모두 무료다. 단,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제9대 양양군의회 개원」

제9대 양양군의회 최초집회에서 전반기 의장단 구성
의장에 오세만 의원, 부의장에 최선남 의원 선출



양양군의회는 지난 7월 1일, 하루의 일정으로 제9대 양양군의회의 최초 임시회인 「제26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함으로, 의장에 오세만 의원, 부의장에 최선남 의원을 선출하였다.

새로 선출된 의장단은 7월 1일부터 2년 간, 제9대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오세만 의장과 최선남 부의장은 “제9대 양양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2년간 동료의원들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제2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운영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조례안 6건 등 총 12개 안건 심의 · 의결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했다.

제9대 양양군의회 개원 이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 의원들은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

지 양양군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며 양양군 발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오세만 의장은 “제9대 양양군의회 개원 이후, 양양군의 2022년 하반기를 계획하는 첫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양군의회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양 진전사에서 시작된 한국의 조계종

양양은 명실공히 불교의 성지이다. 법성종을 창종(創宗)한 원효는 설악산 신흥사에, 화엄종의 개조인 의상은 해안절벽 오봉산 낙산사에 그리고 조계종의 종조인 도의는 설악산 화채봉 자락 진전사에 갔들었는데 진전사는 선교일치(禪敎一致)를 표방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모태(母胎)다.



진전사, 진전사지

도의선사는 당나라에 유학하여 달마로부터 내려온 면벽(面壁) 수행법을 익힌다. 깨우침을 얻은 그는 '누구든 참선만으로 성불할 수 있다'는 선종의 교리를 전파하고자 귀국하나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종으로부터 '마귀의 소리'를 지껄인다고 배척받는다. 유랑길에 오른 도의는 신라의 북쪽 변방 설악산 아래 외진 마을 둔전리에 진전사를 창건한 후 40년을 지내며 수도하다 열반한다.



진전사지 삼층석탑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도 성불할 수 있다는 선종의 구도방식은 글을 배우지 못한 불제자들 마음속에 복음처럼 파고 들었고 내 마음이 곧 부처[자심즉불:自心卽佛]라는 생각은 대중을 매료시켰을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깨뚫어 보고[직지인심:直指人心] 문자를 넘어[불립문자:不立文字]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여[이심전심:以心傳心] 본래 지닌 인성을 살펴 부처에 다다르자는[견성성불:見性成佛] 선종의 교리는 신라 말에 번성하여 고려 창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도의의 사상과 수행법은 염거에게 전해지고 염거의 가르침은 다시 체징에게 전해지는데 체징은 가지산문(迦智山門)을 이룬다. 이런 연유로 도의는 장흥 보림사 가지산문의 개조(開祖)가 되고 후에 조계종의 종조로 추앙받는다.

진전사의 명운

진전사는 낙산사보다 150년 이상 늦은 9세기경 통일신라 때 세워졌는데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이 계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고려의 국사(國師)를 지낸 일연은 진전사의 교세

확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듯 건재하던 진전사가 조선조에 들어 언제 어떤 연유로 폐사되었는지도 모르는 잊혀진 절이 되었다.

절터 발굴과정에서 진전(陳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된 후 고증을 통해 도의선사가 머물던 진전사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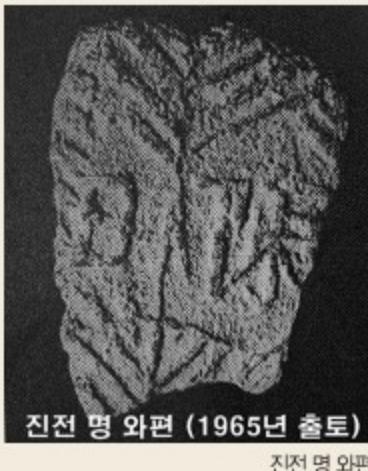
진전사가 조선조에 소멸하였다면 억불정책과도 연관 지어볼 수 있겠으나 낙산사와 견주어볼 때 그것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석연치 않은데 구전에 의하면 화적의 습격을 받아 폐망하였다고도 한다.

낙산사는 이성계의 증조부 익조가 정숙왕비와 함께 관음굴(홍련암)에서 기도하여 이성계의 조부인 도조를 임태하였다는 설화가 있을 정도로 조선 건국 전부터 이씨 가문과 인연이 깊다.

이런 관계 때문인지 억불 군주인 태조는 낙산사에 행차하여 법회를 열고 세자는 사찰을 크게 중창한다. 낙산사는 왜란, 호란 및 몇 차례 화재를 겪으며 소실되었으나 그때마다 왕조의 후원을 받았던 반면 진전사는 그렇지 못했다.

산속 묵정밭에 애써 일구었던 사찰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명운을 도의선사는 미리 예견했던 것인가. 묵을 진(陳) 밭 전(田) 절 사(寺), 이름이 운명을 좌우한다던데 묵정밭절이라니. 하기야 묵정밭이나 절이나 부처가 계시기는 매일반일 터이니…

〈글·사진 : 양양문화원〉



도의선사 옛 부도

진전사지 부도탑을 돌며

한상호

1

설악산 영봉(靈峯)

화채봉 가는 길

신라 선승 도의

걸음 멈추다

2

생각 끊고 마음 이어

조근조근 돌계단 쌓았으리라

한 칸 한 칸 지은 산속 절간

무처불통(無處不通) 큰 바다를 꿈꾸었을 것이다.

3

오오,

허물어져 세워진 큰 문자

묵을 진(陳), 밭 전(田), 절 사(寺)

묵정밭이 곧

절집인 것을

천경(天經) 그 만론(萬論)이 모두

바람에 이는 파도*인 것을

* 조오현, <파도> 일부

【참고 1】 도의국사의 출생과 사망 연대는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성은 왕 씨이고 도의는 법명이다. 신라 선덕왕 5년(784)에 당나라에 가 37년을 공부하고 현덕왕 13년(821)에 귀국하였다.

【참고 2】 진전사지 발굴 시 출토된 기와에 적힌 중국연호를 대조해보면 1467년 조선 세조 13년에 해당한다. 이로 미루어 진전사는 최소한 그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양뉴스 YANGYANG NEWS

양양문화재단, 2022년 양양송이축제·연어축제 개최 일정 확정



양양문화재단은 양양송이축제를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양양연어축제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각각 3일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두 축제는 확장된 콘텐츠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꾸며질 예정이다.

먼저 9월 말 개최되는 송이축제는 국내 최고 품질의 양양송이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내산 버섯과 농·특산물이 함께 전시, 유통, 소비되는 대규모 플랫폼으로 개최된다.

10월 28일부터 개최되는 연어축제는 생태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양양군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양양군은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등록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또는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경우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 동물등록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또는 동물등록대행업체인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체장애인 양양군지회, 2년 연속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권 획득



(사)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양양군지회(회장 이도상)가 강원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을 하여 2년 연속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쾌거를 이뤘다. 수상자는 지난달 30일 춘천에서 개최된 강원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각각 금상을 수상한 컴퓨터 수리 부문의 김삼호씨와 목공예 부문의 이현도씨이다.

이도상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회원 모두가 축하하며 기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삼호씨와 이현도씨는 8월부터 서울과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양양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주말·휴일에는 오전 12시까지만 운영



양양군 선별진료소(PCR 검사) 주말 및 공휴일 운영시간이 변경된다. 최근 코로나19의 감염병 2급 하향조정,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확대 등으로 보건소 PCR 검사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선별진료소의 주말 및 공휴일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로 변경한다.

평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중식 시간이다. 양양군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홈페이지 또는 선별진료소 ([☎033-670-2119](tel:033-670-2119))로 문의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운영 한다. 당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추위민감계층(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였으나,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사업을 확대한다.

이울러 지원단가도 1인 가구는 13만7200원(3만3700원 인상), 2인 가구 18만9500원(4만3000원 인상), 3인 가구 25만8900원(7만4400원 인상), 4인 이상 가구 34만7000원(13만7500원 인상)으로 상향됐다.

신청은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할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는 9월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양양 작은영화관, '2022 작은영화관 기획전' 개최지 공모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고 (주)제이티미디어와 한국작은영화관협회가 주관하는 〈2022 작은영화관 기획전〉 개최지 공모사업에서 '양양 작은영화관(양양문화재단)'이 최종 선정되었다.

〈2022 작은영화관 기획전〉은 양양 작은영화관 개관 이후 처음 열리는 기획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2022 작은영화관 기획전_양양'에서는 7월 22일(금)부터 10월 29일(토)까지 매주 금~일 중에 5개 섹션 15편의 다채로운 영화를 26회 상영하며, 영화와 연계된 부대 프로그램도 4회 진행한다.

책 속의 세상

8월 책 이야기

관계의 안목

- | 신기율 지음
- | 더퀘스트
- | 2022. 7월



정해진 답이 없는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있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여기서 안목이란 자신에게 이로운 사람과 해로운 사람을 구분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분별의 눈'이 아니다.

곁에 있는 '그'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아는 '통찰의 눈'이다. 그런 안목을 갖출 때야말로 관계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소할 실마리를, 나아가 상대를 포용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관계의 안목』은 삶을 둘러싼 관계와 사람을 이해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금 관계와 사람 때문에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그 난관을 무사히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책 속 한 구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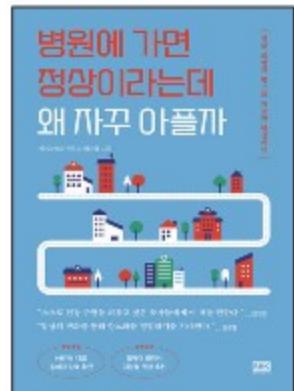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나에게 득이 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그가 어떤 의미를 지닌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가 내 곁에 있는 의미를 알 수 있을 때, 관계의 고통과 불행은 전혀 다른 긍정의 울림을 갖게 된다.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바로 관계의 안목이다.

병원에 가면 정상이라는데

왜 자꾸 아플까

- | 정기영 지음
-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2. 7월



만성피로, 편두통, 불면증,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원인 모를 병으로 아픈 사람들의 답답함을 해소할 책이 출간됐다.

일반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정상이라는데, 병명을 알 수 없어 오랜 시간 아픔을 호소했던 환자들이 저자를 만난 후 여러 증상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했다. 저자는 어떻게 일반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한 환자들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

『병원에 가면 정상이라는데 왜 자꾸 아플까』는 일상에서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의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무엇이며, 건강을 위해 어떤 습관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또한 셀프 건강관리의 법칙을 수록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의 변화를 이끈다. 저자의 지침대로 따라 하다 보면 약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건강 주권을 찾게 될 것이다. 면역, 영양, 수면, 스트레스, 질병 치료법을 한 권에 담은 이 책이 당신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돌볼 것이다.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다
리
마
리
아**
작은영화관기획전
양양

2022. 7월 22일(금) ~ 10월 29일(토)
매주 금,토,일 중 무료관람

작은영화관기획전
양양작은영화관 | 관람문의 033-673-7050

koftc kofic kofic
영화제작자연대
영화제작자연대
영화제작자연대
영화제작자연대

※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 작은
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033-673-7050

<https://yangyang.scinema.org>

건강알리미

장마·태풍과 함께 찾아오는 풍수해 감염병을 아시나요?

풍수해 감염병이 무엇인가요?

태풍 및 장마로 인해 하천범람 및 침수가 발생한 경우 서식처의 환경변화 및 위생환경이 취약해져 병 원균, 모기, 파리, 쥐 등 감염 매개체에 의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물·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물이 달거나, 냉장이 유지되지 않는 음식* 섭취하지 않기
*4시간 이상
- 끓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물을 먹고 사용하기
-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충분히 익혀먹기
-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을 시 조리하지 않기

수해 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반드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
-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 수해복구 작업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취하기
- 작업 중 오염된 상처가 생기거나 작업 후 발열 등 증상 발현 시 인근 병원에서 진료 및 필요시 파상풍 예방접종

접촉으로 인한 안과 감염증 *유행성눈병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수건, 배개, 안약 등 개인 소지품을 함께 사용하지 않기
- 눈에 부종, 출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 받기
- 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피하기

감염병 매개체의 증가로 인한 모기매개감염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 모기 활동시간(주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에 야외활동 자제하기
- 밝은 색 긴 팔, 긴 바지 착용하기
- 모기 기피제 및 실내 살충제 사용하기
- 방충망 정비 등 모기장 사용하기
- 말라리아 발생지역 거주(방문)하고 2년 이내에 발열, 오한 등의 증상 발생하면 즉시 진료받기

수해 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에 의한 렙토스피라증

*병원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쥐 등의 설치류, 소·돼지·개 등의 가축)의 소변 등의 노출을 통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반드시 방수 처리가 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
-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 수해복구 작업 후 발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기

여름철,
풍수해 대비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



출처 : 질병관리청

정보꾸러미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주신우그린	3명	골프장 코스관리	08:00~17:00(주6일)	연3,000만원
주식회사 윤전홈마트)	1명	매장개산원	10:00~19:00(수~일요일)	월215만원
행복노인복지센터	1명	사회복지사	09:00~18:00(주5일)	월186만원
우리건설(주)	1명	토목기술자(공무포함,경력자)	09:00~18:00(주5일)	급여협의
현신소규모 요양시설	1명	회계사무원	09:00~18:00(주5일)	월196만원
그랑블루 클래식 아영정	2명	객실청소원	10:30~15:30(주3일)	1일 15만원
효담노인복지센터	2명	재가요양보호사	시간협의	시급 11,910원
(주)노노에스테이트서비스(설비차)	20명	객실청소원	09:00~18:00(주5일)	월200만원이상(경력자 협의)
	4명	하우스맨	09:00~18:00(주5일)	월200만원이상 (경력자 협의)
강릉최가두부	1명	배송·납품운전원	07:00~11:00(주6일)	월130만원
양양재활재가 노인복지센터	1명	요양보호사	08:40~15:40(주5일)	월210만원
(주)월드와이드 서비스코리아	1명	조리사	09:00~15:00(주6일)	월219만원
	1명	룸메이드	08:30~17:30(주6일)	월225만원
가족노인 주간보호센터	1명	요양보호사	09:00~18:00(주5일)	월191만원이상(협의)
영동상사	2명	배송·납품운전원	시간협의	월250만원이상(협의)
로데스풀빌라	3명	객실청소원	10:00~14:00	시급20,000원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 제안사업 공모 안내

사업규모 7억원

대상사업

- 총사업비 5천만원 이내의 군비로 가능한 단년도 사업
-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제안자격 군민 누구나

제안방법 주민 제안서 제출

- 서식 : 읍면사무소 민원실 비치, 군 홈페이지 다운로드
- ※ 군 홈페이지 => 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재정공개-주민참여예산제)

접수처 해당 읍면사무소 / 방문, 우편 등

제안기간 2022. 7. 18. ~ 9. 16.

추진절차 공모사업 접수 (읍·면 총무팀, 기획감사실 예산팀) => 사전 검토(사업부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사업 최종 선정) => 최종 선정사업이 반영된 2023 예산안 군 의회 제출 (2022. 11월중)

문의사항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033-670-2212)

2022년 군민정보화교육 일정안내(9월)

월별	기간	접수기간	수강내용
9월	9. 5 ~ 9. 29. 주간(화,목) 야간(월,수,목)	8. 29 ~ 9. 2	(주간) 컴퓨터 기초반(컴퓨터 입문 및 인터넷 기본과정)
			(야간) ITO한글 및 ITO액셀러의 및 실습 병행

교육장소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제1교실)

교육인원 각반12명(선착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유동적 대응

교육시간 (주간반) 10:00~12:00(화, 목) / (야간반) 18:30~20:30(월, 수, 목)

신청방법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033-670-2116)

* 교육일정 및 수강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육이 부득이하게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관련 설문조사

양양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예산편성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설문별로 귀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간 2022. 7. 11. ~ 8. 31.

내용 재정운영 방향 및 우선 투자사업 조사 등

조사항목 20개항목

참여방법 군 홈페이지 => 군민소통(설문조사-2023년도 예산편성관련 설문조사)

문의사항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033-670-2212)

2022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무기질비료 지원) 안내

사업비 919,108천원 (국비 344,665, 도비 68,933, 군비 160,844, 농협 344,666)

지원기간 2022. 1. 3. ~ 12. 10.

지원대상 농협에서 농업경영체에 공급(판매)하는 무기질비료

지원물량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구매량의 95% 이내에서 지원

작목전환, 재배면적 확대, 신규 진입 농업인, 농협 외 비료판매업체와 직거래 농업인 등은 추가 배정 가능

지원방법 지역농협에서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 사전 차감 판매 후 사후정산

문의사항 양양군청 농업기술센터 (☎033-670-2439), 지역농협 구매계

정보꾸러미

**하늘길 양양 -
"아름다운 양양풍경 사진전"**

일시 2022. 08. 22(월) ~ 09. 20(화)
장소 양양국제공항 2층

주최 ·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양지부
후원 : 양양군, 양양문화재단, 양양예총

주소기반 D.N.A.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이디어
공모전**

2022. 7. 4(월) - 8. 31(수)



주최 행정안전부 주관 한국국토정보공사

**2022 통통통록 차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차진신고 7.1.~8.31.
집중단속 9.1.~9.30.**

등록 대상
- 주민등록에서 기재는 2개월간 이상인 개
- 주민등록에 원의 장소에서 번역 목적으로 기재는 2개월정 이상인 개

등록등록 방법

【내부형 명식】
- 등록등록내에서 등록번호를 방문하여
내장신 사설주소 및 등록 신청서 작성 세우

【외판형 명식】
- 등록등록내장신 등록연정 및 등록 등을 통해
외장신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 등록등록내장신은 www.animal.go.kr에서
제작 가능

변경신고 대상

10월 이내
- 등록등록을 일정기한은 겸유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관련번호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 등록등록이 죽은 경우
- 일정기한은 등록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신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등록번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하기. 소유자가 바뀐경우는 소유자가 기재하는 경우에는
법정시 사장·기술을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리 푸드서 (국립법원) 120,
통합보조미지 심설센터 1577-0964로 문의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국립법원

www.h.go.kr 1588-6114

**간
인생**
대출기간 늘리고! 대출부담 줄이고!

40년 동안 금리변동 없이 「초장기 보금자리론」과 함께하세요

초장기 보금자리론

대출상당
- 한글을 선택 대출금액에 30세 이상 만기는 신한카드
- 노령카드·분당도시개발공사카드·자녀
- 낙동강하단3동 대출금액자·도내
- 부부별산연소득기준점(최신점기구 평균한 계약)

대출주체
- 주거기자재한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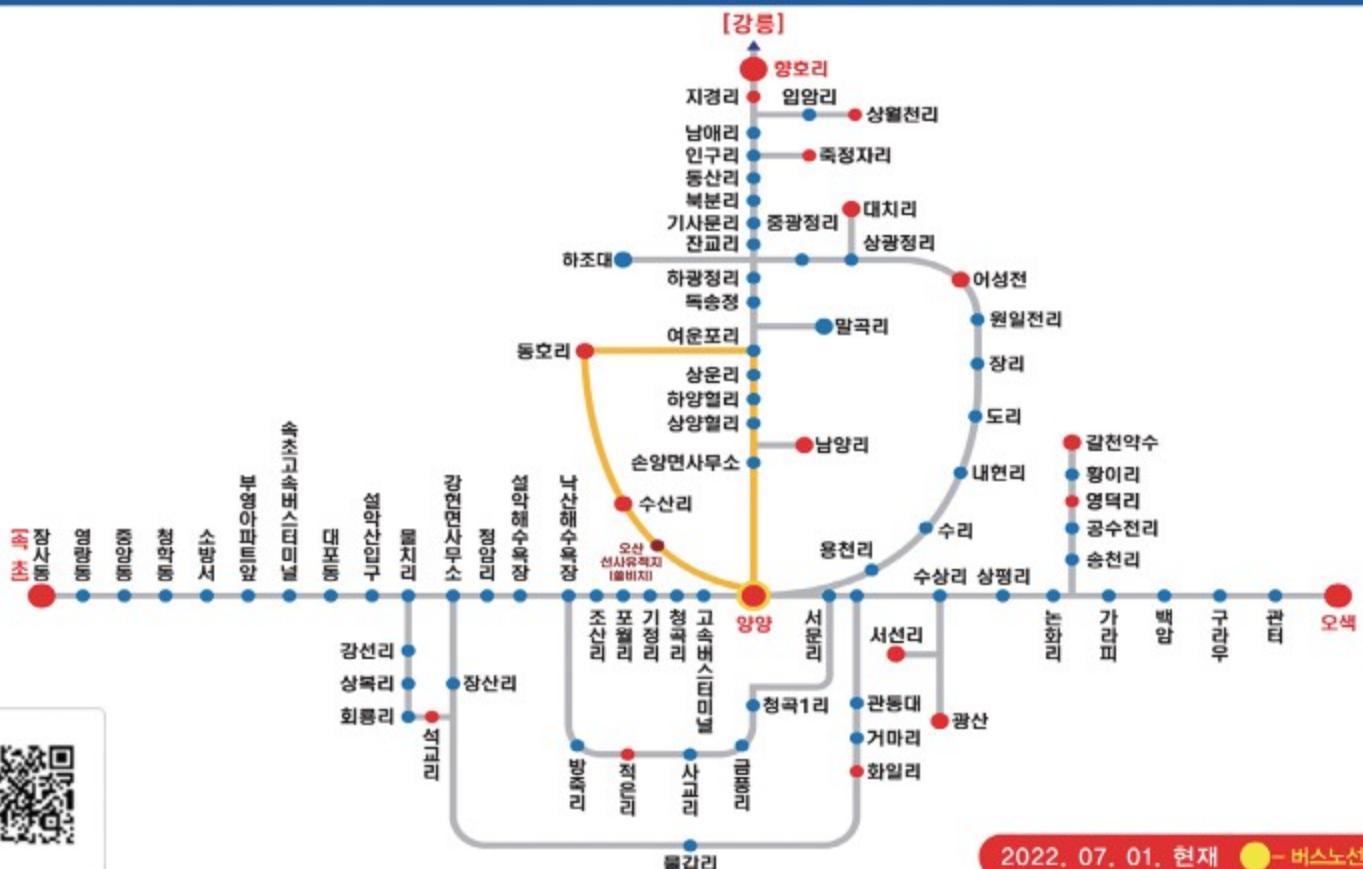
대출금리
- 20년 기준 기준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부부금리	4.0%	4.3%	4.7%	4.8%	4.9%
부부금리자	4.5%	4.8%	4.6%	4.9%	4.7%

※ 2020년 2월 20일 기준 · 노령카드는 연령 제한이 제한적이다. 이는 노령카드만은 60세 5년
기준이며 다른 카드는 65세 10년이다.
※ 2020년 2월 20일 기준 · 노령카드는 연령 제한이 제한적이다. 이는 노령카드만은 60세 5년
기준이며 다른 카드는 65세 10년이다.
※ 2020년 2월 20일 기준 · 노령카드는 연령 제한이 제한적이다. 이는 노령카드만은 60세 5년
기준이며 다른 카드는 65세 10년이다.

신청방법
주택금융공단 웹사이트 www.hf.go.kr '주택금융포털'
고객센터 웹사이트 www.hf.go.kr '스마트주택금융'

QR 코드



1	양양 ↔ 오색 (간접여객)	7 7-1	양양 ↔ 어성전(수리) (간접여객)	77	양양 ↔ 어성전(하조대) (간접여객)	11	양양 ↔ 대치리 (간접여객)	10	양양 ↔ 갈천리 (마을버스)
	양양발 오색발		양양발 어성전발 하조대발		양양발 하조대발 어성전발		양양발 대치리발		양양발 갈천리발
07:20	07:55	7 07:00	07:30 07:45	07:10	07:30 07:50	08:30	09:20	07:00	07:50
08:20	08:55	7-1 10:10	10:45 11:00	09:00	09:20 09:40	12:10	13:00	11:00	11:50
09:00	09:35	7-1 13:50	14:25 14:40	13:00	13:20 13:40	17:10	18:00	15:10	16:00
11:30	12:10 <small>(화이팅)</small>	7-1 16:10	16:45 17:00	15:50	16:10 16:30			18:40	19:30
12:30	13:05	7-1 19:00	19:30 19:45	16:50	17:10 17:30				
14:00	14:35	3 31 32 33	양양 ↔ 수산, 동호리(상운) (간접여객)						
15:00	15:35		양양발 동호리발	5 51	양양 ↔ 광산, 서선리 (간접여객)	07:40	07:50 07:52 07:54		
17:00	17:35	31 07:20	07:45(상운발)	양양발 광산발 서선발	08:00 08:20 08:40	10:00 10:10 10:12 10:14	07:40 <small>(동산리 마을민족 미집회)</small>	08:05	
18:30	19:05	32 09:30	순환(09:55) <small>(9번 → 순환면사무소)</small>	5 10:10	10:25	12:30 12:40 12:42 12:44	08:15 <small>(동산리 마을민족 미집회)</small>	08:45	
19:30	20:00	33 10:50	순환(11:15) <small>(순환면사무소 → 수산)</small>	5 13:30	13:45	14:30 14:40 14:42 14:44	09:15 <small>(남양리 마을민족 미집회)</small>	09:45	
		3 12:20	12:35(수산발)	5 15:30	15:45	16:10 16:20 16:22 16:24	10:25 <small>(남양리 마을민족 미집회)</small>	11:10	
				5 18:10	18:25	18:40 18:50 18:52 18:54	11:40 <small>(남양리 마을민족 미집회)</small>	12:10	
							13:05 <small>(남양리 마을민족 미집회)</small>	13:35	
6	양양 ↔ 남양리 (간접여객)			21 22 93 94 95	양양 ↔ 석교, 상복, 훈전리 (간접여객)	100	양양 ↔ 국제공항 (마을버스)	322	향호리 ↔ 하조대 (마을버스)
	양양발 남양발		33 14:00	양양발 상복발 훈전발	21 07:10	07:40	08:10 08:30	향호리발	향호리발 하조대발
10:30	10:50	3 15:30	순환(14:25) <small>(수산면사무소 → 수산)</small>	93 08:00	08:25	11:50	08:10 08:30	07:40 <small>(동산리 마을민족 미집회)</small>	08:05 <small>(동산리 마을민족 미집회)</small>
13:10	13:30	32 16:00	순환(16:25) <small>(9번 → 순환면사무소)</small>	94 11:50	12:15	12:25	11:50 12:10	08:15 <small>(동산리 마을민족 미집회)</small>	08:45 <small>(동산리 마을민족 미집회)</small>
15:10	15:30	3 17:30	순환(17:45) <small>(수산면사무소 → 수산)</small>	95 14:40	15:15	18:00	12:10 12:20	09:15 <small>(남양리 마을민족 미집회)</small>	09:45 <small>(남양리 마을민족 미집회)</small>
18:10	18:30	31 18:20	18:45(상운발)	93 18:10	18:45	18:55	18:00 18:20	10:25 <small>(남양리 마을민족 미집회)</small>	11:10 <small>(남양리 마을민족 미집회)</small>
2 21 22	양양 ↔ 화일리 (간접여객)	8 81	양양 ↔ 적은, 감곡리 (간접여객)	12	양양 ↔ 지경리 (간접여객)		325	향호리 ↔ 상월천 (마을버스)	326
	양양발 화일리발 상복발		양양발 적은리발		양양발 지경리발			향호리발 상월천발	향호리 ↔ 죽정자리 (마을버스)
22 07:10 <small>(화이팅)</small>	07:55	07:40	8 08:10(낙산)	08:25	06:50	07:25		06:50	07:20 07:45
2 10:10	10:25		8 10:00(감곡)	10:20	08:50	09:30		06:50	
2 12:30	12:45		8 13:40(낙산)	13:55	09:30	10:30		10:30	10:45 11:20 11:40
21 14:40 <small>(화이팅)</small>	15:35	15:15	8 18:30(감곡)	18:50	10:40	11:55		13:00	13:25 14:10 14:35
2 17:00	17:15				11:20	12:10		18:00	18:25 18:55 19:20
					14:20	15:10			
					18:10	19:00			

간접여객(양양) ☎ 671-3013, (속초) ☎ 633-2277 | 동진버스 ☎ 653-8011 | 양양군청(교통행정) ☎ 670-2765 | 시간표는 도로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새벽운행기간(7.1~8.31.) 남애리 마을민족 미경유

양양→속초 운행 안내

- ▶ 양양↔속초간 노선번호 9번(영금정방면), 9-1번(의료원방면)
- ▶ 속초발 첫차 06:30, 막차 21:00 / 양양발 첫차 07:20, 막차 21:00

대중교통정보안내 ☎ 080-850-9486